

“9억 이상 집 매매 시 자금출처 조사할 것”

홍남기 부총리, 장관회의서 의심거래 조사 강화 예고 공공참여 고밀재건축 사업엔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

정부가 공공 고밀 재건축 사업을 계획대로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못 박았다. 9억원 이상 고가주택 매매 자금출처 의심거래는 상시 조사하고 결과를 주기적으로 공표하기로 했다. 또한 공급대책의 주요 개발 예정지는 상시 모니터링하고 과열 우려 시 즉시 기획조사에 착수하기로 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연 ‘제1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부동산 시장 교란 행위는 절대 용납할 수 없다는 원칙 아래 대응 강화를 위한 방안을 중점 논의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관계기

관 간 공조를 통해 집값 담합, 부정 청약, 탈루 등에 대한 조사·수사 및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라며 “변칙·불법거래 의심 사례는 예외 없이 전수조사해 끝까지 추적하고 엄중한 처벌을 하겠다”고 경고했다.

그는 “주택공급이 아무리 늘어나더라도 불법거래, 다주택자들의 투기 등을 근절시키지 않는다면 부동산 시장 안정 달성은 어려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관계부처 합동 부동산 거래 조사에 따르면 1인 법인·외국인·갭 투자자의 다주택 취득, 업·다운 계약서 작성, 무주택자 명의를 이용한 대리청약 등 부동산 시장 교란 행위가 있었던 것으로 파

악된다”며 “이런 교란행위들은 내 집 마련을 꿈꾸는 실수요자들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안길 뿐 아니라 불안감을 자극해 매수 심리를 고취하는 추격 매수를 야기해 시장을 더욱 불안하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그동안 발표한 부동산 입법, 공급 대책의 후속 조치에도 속도를 내기로 했다. 홍 부총리는 “수요 관리 측면에서 부동산 입법 관련 하위법령의 조속한 개정을 추진하겠다”며 “공급 확대 측면에선 공공기관 이전 필요부지 매입 등 기간간 협의를 신속히 추진하며 태풍 등 광역교통망 계획 수립과 도시정비법 등 재건축 확대를 위한 법령 정비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공공참여형 고밀재건축을 두고 서울시에서 이견이 나온 데 대해

“서울시와 실무적으로 다른 의견이 있던 것처럼 비쳤으나 이견이나 혼선이 있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한다”고 말했다.

그는 서울시가 ‘사업 자체를 반대한 것이 아니라 공공 아닌 민간재건축 부문도 보완이 필요하다’는 추가적인 의견을 제시한 것’이라고 추가 보도자료를 낸 것을 강조한 뒤 “정부는 앞으로 서울시와 협력해 재건축 조합과의 소통 등을 통해 공공 고밀 재건축 사업을 계획대로 차질없이 추진해나가도록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이런 발언은 서울시를 비롯, 일부 지자체장, 여론 인사들 일부까지 공공고밀재건축 사업에 반대 의사를 표명하자 4일 발표한 계획에 변함이 없다는 의지를 재확인한 것으로 해석된다.

2020 JDC와 함께 생각을 증추게 하는 NIE 공모전

공모기간: 2020년 10월 12일(월)

공모대상: 도내 초·중·고등학생

공모분야: NIE 학습활동 및 스크랩 (기사활동: 2020년 1월 1일자 신문부터 가능)

형식: 활동지(크기 자유) 10매 이상

시상

- 개인: 대상 1명(상금 40만원), 금상 4명(각 20만원), 은상 6명(각 10만원), 동상 11명(각 5만원)
- 단체: 대상 1명(상금 40만원), 최우수 7팀(각 20만원), 우수 5팀(각 15만원)

지도자 및 지도교사상: 1명(상금 20만원 / 교육감상 또는 한리일보 대표이사상)

※단체상은 일반 및 학교부문 구분 응모. 단, 일반부문은 팀당 3명 제한. 학교는 반 또는 동아리. 부문별 출품작 수와 작품 수준에 따라 시상내역은 달라질 수 있으며, 개인과 팀부문 이중지원은 안됩니다. >>개인·팀 부문 이중지원 안됨

접수처: 우편(제주시 서사로 154 한리일보사 4층 편집국 NIE 공모전 담당자 앞) 또는 방문 접수

문의: 010-2024-5692

정부, 의료계 달래기? “국민피해 야기 안돼”

총파업 엄중 대응 경고도

정부는 의료계가 의과대학 정원 확대 정책에 반발하며 파업을 예고한 것과 관련해 대화와 타협 입장을 유지하면서도 국민에게 피해가 발생할 경우 엄중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차관)은 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국민들에게 피해를 야기할 수 있는 집단행동은 자제하고 대화와 협의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 나갈 것을 요청 드린다”고 말했다.

앞서 전공의들로 구성된 대한전공의협의회는 정부의 의과대학 정원 확대 계획이 의료계 왜곡을 가중한다며 7일 중환자실, 분만, 수술, 투석실, 응급실 등 필수 인력까지 모두 포함해 전면 파업에 나서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의사단체인 대한의사회(의협) 역시 이달 14일 총파업을 예고한 상태다.

김 1총괄조정관은 “향후 의료계의 집단행동 과정에서 혹시 불법적인 요소가 발생한다면 법과 규정에 따라 원칙적으로 대응할 것”이라며 “만에 하나 국민에게 피해가 발생할 경우 엄중하게 조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수천명 사상자 낸 레바논 베이루트 폭발 4일(현지시간) 레바논 수도 베이루트 항구의 대규모 폭발 현장에서 검은 연기가 피어오르는 가운데 소방헬기가 진화 작업을 벌이고 있다. 이날 참사로 현재까지 100명 이상이 사망하고 4000여명이 부상을 입었다. 정확한 원인은 밝혀지지 않았지만 항구 창고에 별도 안전장치 없이 장기간 대량으로 적재됐던 인화성 물질 질산암모늄에서 비롯된 것으로 추정되면서 이를 보관하고 있는 사실을 아는 외부 세력의 개입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워 보인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를 두고 “끔찍한 공격”으로 규정했다. 연합뉴스

내년 최저임금 8720원... 역대 최저 인상

내년에 적용될 최저임금이 시간당 8720원으로 최종 확정됐다.

고용노동부는 5일 내년도 최저임금 8720원을 고시했다고 밝혔다. 이는 최저임금위원회가 지난달 14일 의결한 것으로, 올해 최저임금

(8590원)보다 1.5% 오른 금액이다. 최저임금제도를 도입한 1988년 이후 가장 낮은 인상률이다.

1주 소정 근로시간 40시간(유급휴 휴 포함)을 적용해 월급으로 환산한 금액은 182만2480원이다.

노동부의 고시로 내년도 최저임금은 내년 1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하게 된다. 내년도 최저임금은 업종과 상관없이 모든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된다.

최저임금위원회 의결 결과에 반발해온 노동계는 이의 제기에 의미가 없다고 보고 최저임금제도 전반의 개혁을 요구하고 있다.

“또다시 큰비 내린다고? 서두르자” 수도권·중부 실종자 수색·복구 진땀

수도권과 중부지방에 나흘째 이어진 집중호우로 피해 규모가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가운데 5일 또다시 강한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돼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기상청은 이날 중부지방에 시간당 50~100mm(일부 지역 120mm 이상)의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했다.

그러자 다시 물폭탄이 쏟아지기 전 파손된 도로와 하천 등을 조금이라도 더 손보고 실종자를 찾아내려는 일손이 바쁘게 돌아오고 있다.

지난 1일부터 내린 비로 5명이 숨지고 8명이 실종되는 등 가장 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한 충북에선 이른 아침부터 실종자 수색작업이 재개됐다. 충북도소방본부는 소방대원 등 인력 584명과 드론 등 장비 79대를 투입해 실종자를 찾고 있다.

일가족 3명이 실종된 단양에선 사고지점~도담삼봉까지 8개 구역에서, 컨테이너 안에 있던 주민 1명이 실종된 음성에선 사고지점~괴산댐까지 2개 구역에서 각각 수색작업이 진행 중이다.

도소방본부 관계자는 “계속된 비로 하천 수위가 높고, 유속이 빠른 데다 흙탕물로 시야 확보가 어려운 상황이지만 조속히 실종자를 찾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8명이 숨지고 1명이 실종된 경기

지역에서도 비가 소강상태를 보임에 따라 실종자 수색과 복구 작업에 박차를 가했다. 경기도는 재난대책본부 근무체계를 2011년 이후 9년 만에 비상 2단계에서 4단계로 격상했다. 평택·이천·가평·여주·안성 등에 현장 상황지원반을 운영하는 한편 장비 682대와 인력 4032명을 투입해 피해 복구 작업을 하고 있다.

사흘 동안 200mm 넘는 폭우가 쏟아진 충남 천안과 아산 주민들도 날이 밝자마자 파손된 도로와 하천 등을 보수하는 등 바쁘게 움직였다. 천안시 수신면 장산리에선 농민들이 비닐하우스에서 진흙과 부유물을 걷어내는 작업을 시작했다. 지난 3일 아산시 송악면에서 토사에 휩쓸려 하천에 빠진 주민 2명 수색작업도 재개됐다.

한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이날 오전 6시 현재까지 집계한 피해 규모는 사망자 15명, 실종자 11명이다. 이재민은 983세대 1587명으로 늘어났다.

이들 중 278세대 441명은 귀가했지만 나머지 705세대 1146명은 친인척 집이나 체육관·경로당·마을회관 등에 머물고 있다. 주택 침수·매몰이 1273건에 이르고 축사·창고 705건, 비닐하우스 148건의 피해가 발생했다.

재단법인 서울제주도민회 장학회

2020년 제2학기 장학생 신청서류 접수 안내

본회에서는 제41차(통산105차) 장학생 선발 안내를 하오니 기간 내에 서류를 갖추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접수기간 : 2020. 8. 5(수) 09:00 ~ 8. 25(화) 17:00

선발대상 (자격)	1) 출신 및 대학: 서울제주특별자치도민회 회원의 자녀로서 4년제 이상 정규 대학 재학생 또는 제주거주도민의 자녀로서 제주도 이외에 소재한 4년제 이상 정규 대학의 재학생. 2) 성적기준: 직전 학기 평점 평균이 B학점(또는 100점 만점 기준 80점) 이상인 자를 원칙으로 함. 다만, 경제적으로 특히 어려운 경우 B학점 미만의 지도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지원 가능함. 3) 취득학점: 직전 학기 12학점 이상 4) 제외대상: 신입, 편입의 경우 당해 학기의 재학생
구비서류	1) 본회 소정 양식의 지원서(명함판 사진 부착)와 추천서 각 1통 - 추천서는 총장 또는 학과장 추천이어야 하며 반드시 원본 “직인” 날인이 있어야 함. 2) 접수기간 내에 발급한 재학 증명서 또는 등록금 납부 확인서 1통 3) 접수기간 내에 발급한 성적 증명서 1통 4) 총장 또는 학생처장, 학장이 발급한 2020년 2학기 장학금 수여허용 확인서 1통 5) 학교 및 타 장학단체 장학금 수여자는 수여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단, 200만원 미만 수여자는 예외 6) 등록기준지나 원적지가 제주임을 확인할 수 있는 보호자의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제적 증명서 1통 7) 보호자의 주민등록등본 1통 8) 보호자의 등록기준지나 원적이 제주가 아닌 경우 신청인 본인이 제주에서 초·중·고를 수학했음을 증명하는 서류 각 1통 9) 부·모 각각의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입기간: 2020.1.1.~2020.6.30) 확인서 각 1통 10) 부·모 각각의 건강보험 자격 득실 확인서 각 1통 11) 부모 이외의 자가 부양자일 경우 부양자의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입 확인서 1통 (9-11항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발행)
접수방법	본회 직접 방문 접수 또는 우편접수(마감일 소인 인정만 가능)
접수처	(재)서울제주도민회장학회(Tel.02-3662-2651) 07526 서울시 강서구 양천로57길 10-10 탐라영재관 4층(가양동)
참고사항	1) 접수된 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않습니다. 2) 장학회 이사 및 선정위원은 장학 대상자를 추천할 수 없습니다. 3) 접수 마감 일시까지 미비된 서류가 있으면 심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4) 본회 소정양식은 서울제주특별자치도민회 홈페이지(www.jejuinseoul.com)에서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5) 장학생으로 선정된 자는 개별통보하며 지급 일정은 홈페이지 참조바랍니다.

2020. 8.

(재)서울제주도민회 장학회 이사장 백명운